

Vol. 9

도도수영, 날아오르다

도도수영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여는 글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붉은 가을이 왔습니다.
봄에 심은 여린 나무를 여름내 땀 흘려 가꾼 덕분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간 8개 중 하나인
도도수영8A를 개관하였습니다.
수영구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과를 알리는 전시회와 마을 축제를 열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재생공모사업 참가자들의 결과물은 빛났습니다.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칼림바와 오래된 피아노가 내는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고,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에는 향기로운 허브가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유사사례지답사를 김해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도수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도시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을 실천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전 미 경**

도도수영

Vol. 9

도도수영, 날아오르다

Contents

04 유사사례지 견학

김해를 알다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녀와서

08 수영의 문화

정과정(鄭瓜亭)

정과정 유적지를 다녀와서

12 도도수영 축제

도도수영 골목을 활짝 열다

‘도도수영축제 오픈하우스’ 도슨트투어를 진행하며

16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을 소개합니다!

20 도도수영 NEWS

에코상생학교

도도수영 숲학교

너도나도 테마탐방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임시총회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제품 개발



김해를 알다

.....

이명심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선정한 유사사례지 김해를 다녀왔다. 8월의 끝자락,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다. 부산에서 가까운 도시 김해이기에, 여행이라기 보다는 소풍을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모였다. 개인적으로 집합 장소였던 도도수영 8A는 처음 들러보았는데, 다양한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기분 좋게 랫츠 고~^^



먼저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착해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센터는 지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얼핏 보면 주차장 타워 같은 느낌의 건물이었다. 5층까지는 주차장, 6층부터 사무실로 되어있어 시장과 상생하는 공리가 함축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김해시는 신도심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015년부터 해왔다고 한다.



▲ 김해스토리커피 남산별곡



▲ 회현연가

포용과 화합의 장유무계
주민·청년·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 타운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원도심 도시재생

우리는 위와 같은 테마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원도심의 거점시설인 회현연가, 봉황대길, 남산별곡을 견학했다.

제일 먼저, 청년 셰프가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회현연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기대를 안고 향한 회현연가의 주차장에 도착하니 치즈 모양의 예쁜 조형물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회현연가 김해 치즈 스토리>라는 이름답게 레스토랑 입구에는 양증맞은 소 모양의 조형물이 서있었고, 건물 외관은 치즈를 연상케 했다.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춘 디자인인데다 치즈 체험관도 있어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청년 셰프와 시니어接客원의 콜라보레이션~ 아직은 조금 미숙하게 여겨지지만 기대할 만하다.

식사를 끝내고 <봉황대길>로 향했다. 예술가들의 가게로 주류를 이룬 핫한 거리인 만큼 예쁜 가게가 많아 발걸음이 느려졌다. 카페를 비롯해 종이 상점, 빈티지 옷 가게,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는 과자가게, 크고 예쁜 창틀의 꽃집 등 볼거리가 많았다. 거기에 발맞추어 예쁜 화분으로 담벼락을 장식한 주택들도 눈길을 끈다.

이제 <남산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다. 김해 시청 바로 뒤에 있다고 했는데 조금 찾기가 어려웠다.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다시 왼쪽 길로 내려가야 했다. 덩기도 했지만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 눈 앞에 펼쳐진 벽화골목이 미소를 짓게 했다.

좁고 아기자기한 골목에 노스텔지어가 느껴졌고, 그 앞에는 <남산별곡>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부는 아주 깔끔했다.

스토리를 가미한 커피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야물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대추알을 품고 담벼락으로 허리를 내밀고 있는 대추나무가 있었다. 추석이 머지않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더운 날씨의 견학으로 조금 힘든 감은 있었지만 얻은 수확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모방으로 시작해 발전해 나가는 세상 이치, 비평의 눈길로 본 사항들, 네이밍의 중요성, 꿈은 담대하게 계획은 꼼꼼하게 등등~~ 이번 견학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지혜가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김해스토리커피 남산별곡 내부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녀와서

서태숙



날씨도 화창한 아직은 뜨거운 여름 끝자락!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한 유사 사례지 답사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가게 되었다.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을 밑에 두고, 가야 글로벌센터 및 중앙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자리한 깨끗하고 넓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들어섰다. 김해시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을 알차고 조리 있게 잘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센터에서 나와 우리는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회현연가, 봉황대길, 남산별곡 순으로 견학을 시작했다.

〈회현연가 김해 치즈 스토리〉는 국내 최초 토종균을 활용한 김해 치즈, 요거트를 생산한다. 또 치즈 체험 프로그램과 치즈 레스토랑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치즈 체험장 옆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맛뿐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분위기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풍성한 주민 주도 문화가 빛나는 <봉황대길>로 출발했다.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김해의 원도심은 침체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2015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거리가 조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봉황대길>이다.

주민 대표를 포함한 40명의 주민들은 2018년부터 시민대학을 통해 경관디자인과 도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에 참여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지역 주민뿐 아니라 여행객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고 한다.

깨끗한 주택의 담에 걸려 있던 채송화 꽃꽂이 수업이 한창인 가게

곳곳이 정겨운 거리를 뒤로하고 남산별곡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청 뒤 벽화가 그려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 대추나무 한 그루와 이야기가 있는 커피숍 <남산별곡>이 있었다.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는 우리의 피곤함을 싹 가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김해시 도시재생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수한 유사사례지 견학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의 장, 단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다.



정과정(鄭瓜亭)

최 광 훈

망미동 코스트코 근처에 가면 도로에 둘러싸인 야트막한 언덕에 고려 시대 정서(鄭紱)를 기리는 정과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

1850년 경상좌수영에서 발간한 내영지 '고적'편에 과정(瓜亭)은 본영 북쪽 3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곳에는 경암(鏡巖, 용두곶)이라는 바위가 있고, 보호수 1그루와 1984년 토향회에서 건립한 정과정 시비(詩碑)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정서(鄭紱)는 고려 인종의 왕후인 공예태후의 여동생과 결혼하였기에 임금과는 동서지간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인종이 서거하고 의종(처조카)이 즉위한 후에 모반과 관련한 참소를 받아 고향인 동래로 쫓겨났다.

왕이 이르기를 “가면 마땅히 다시 불러들이리라” 하였으나 오래도록 부르지 않았다. 이에 정자를 지어 오이(瓜)를 심고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 부르며 망산(望山, 현 망미주공아파트 자리)에 올라가 임금이 계시는 개성을 바라보며 임금께 잔을 바쳤다고 전해진다.



정자에서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연군(戀君)의 뜻을 붙였다고 하는데, 가사가 극히 처량하고 한스럽다. 고려사 악지에 제작 동기와 이제현(李齊賢)의 해시(解詩)가 수록되어 있고, 네 줄의 칠언절구가 기재되어 있다.

우리말 노래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해지며 우리말로 전해진 고려가요 가운데 작자가 확실한 유일한 노래이다. 악학궤범에는 삼진작으로 되어있으나 후에 그의 호를 따 ‘정과정곡(鄭瓜亭曲)’이라 불려졌다.

유배지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절실하고 애달프게 노래하였다고 하여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 때문에 궁중의 속악 악장으로 채택되어 기녀(妓女)는 물론 사대부 사이에도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후대에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 같은 연주지사의 원류가 되었다.

※ 마지막 구절이 특히 압권이다.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직역 : 그림고 그리운 님아 마음을 돌리시어 날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의역 : 임금님 곁에서 충성을 다해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을 돌리시어 다시 저를 관직에 불러 주십시오)



32도가 넘는 폭염의 한가운데 있던 8월 9일 오후.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정과정 문화유적지(망미 2동 17번지)를 찾았다.

정과정 유적지를 다녀와서

신혜경

정과정은 센텀수영강변 이편한세상 2차아파트 건너편 작은 동산 위에 있어, 마치 번잡한 도로를 발아래 두고 고즈넉하게 도도히 서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지대가 높아 시원한 바람까지 부드럽게 불고 있어서 더위까지 날려버린 듯, 함께 간 우리는 더운 줄도 모르고 최광훈 선생님의 해설에 빠져들었다.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400년 넘은 보호수 한그루와 경암 또는 용두곶이라 불리는 바위, 그리고 정과정곡이 새겨진 시비였다.

정과정곡을 원문 그대로 운율에 따라 읊어 보면 더 아름답지만, 그 뜻을 앞뒤 부분 풀이만 옮겨 보면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으니 나는
저 산의 접동새와 참 비슷하군요 (중략)
님이시여 벌써 저를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시여 마음 돌려 들으시어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의 연시 못지않은 비유미와 애절함이 느껴지는 충신 연주시사라는 걸 느끼며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10구체 향가의 형태로 노래지어졌지만 고려사 악지에는 한역되어 전하고 있는 이 정과정곡은 조선조에 이르러, 구전되어 오던 고려가요들과 함께 정리되면서 악학궤범에 악곡의 가사로 수록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선 시대 우리말로 기록된 노래 중 지은이가 알려진 유일한 고려가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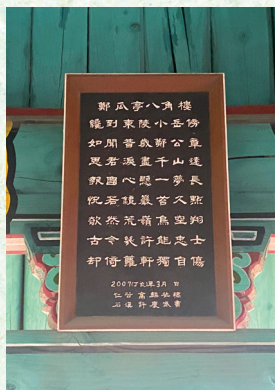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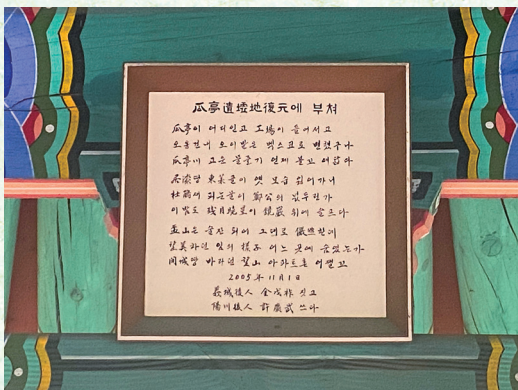
크다는 것을 새삼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과정은, 정서가 고려 의종 때 충신이었지만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내려와 지내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후손들이 2004년 삼을 뜨고 2007년 12월에 완성하여 지금의 자리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정서는 이 인근 유배지에서 오이발을 일구며 임금님을 그리워하였다고 해서 오이 과(瓜)자를 넣어 과정으로 불리었는데 현재 ‘과정로’라는 도로명과 ‘망미(望美:임금님을 그리워함)동’이 지명으로 사용되고 과정교라는 다리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물론 정서가 지내던 곳이 현재의 위치는 아니었고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래부 아래 10리’라고 기록되어 전하는데, 개발로 인해 지형과 그 모습이 변하여 잘 알아볼 수 없지만, 지금의 정과정 인근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정과정 팔각루에 올라 옛날 정서가 지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팔각기둥 위에 액자로 걸려 있는 한시 등을 최광훈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자락을 음미하기도 했다.

내려오는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수령 400년이 넘은 보호수 팽나무였다. 특유의 몸짓으로 뒤틀리며 감아 도는 밑동은 정말 훌륭한 자연의 걸작품이고 장엄하게 그늘을 드리운 잎과 가지들이 싱그럽게 바람의 숨결에 흔들리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누군가가 요즘 관심 폭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했던 창원의 소덕동 보호수 팽나무



를 거론하며 정과정을 지키고 있는 이 보호수도 천연기념물이 될 만하지 않냐고 이야기해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기대를 부풀려 보기도 했다.

이 보호수는 정과정 유적지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위용을 더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이곳을 찾으면 마음의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다. 도시재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과거와 현재로 어떻게 이어져 왔고 미래에 어떤 모습과 이야기로 연결되어 갈 것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보이는 것과 보여질 것에 대해 재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정과정 유적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호흡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과정 유적지가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의미를 새기며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도도수영 골목을 활짝 열다

김연희

“ 이곳은 도도수영8A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어지게 될 7개의 거점공간들을
연결 및 총괄하는 곳이자,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이용될 공간입니다. ”



작은 가정집 두 채를 보며, 또는 가림막으로 신비하게 가려진 공사
현장을 보며 해설해왔던 이곳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독특하고 귀한 색감으로 표현된 공간 <수영성 I : 도도수영8A>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층 → 주차장, 망미골목 쉼터
- 2층 → 오피스1, 오피스2, 앞마루 쉼터
- 3층 → 열린 카페, 소모임실, 뒷마루 쉼터
- 4층 →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
- 옥상 → 하늘마루 쉼터(옥상정원)





각 층의 사용설명서를 살펴보고 내려오다 보면 ‘왜 이곳 망미골목 한복판에 도도수영8A가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의문이 바로 풀린다. 이곳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와 활동을 위한 골목 커뮤니티 공간이다. 많은 이웃들이 편하게 둘러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도도수영8A>가 개관하는 날! 흥겨운 풍악으로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나쁜 것은 잡아주고, 좋은 사람은 더욱 좋게 해준다는 검은 호랑이 탈춤과 함께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도도수영 골목도 활짝 열렸다.

이곳을 중심으로 “2022 도도수영축제 오픈하우스” 또한 이루어졌다. 취미취향로드 지도에는 사업지 내의 공방과 카페들이 아기자기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골목지도를 보며 사람들은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사전예약과 현장구매로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도도수영 상품권은 축제의 즐거움을 배로 올려주었다.

비콘그라운드 살림장에서는 주민들이 돗자리 위에 직접 손으로 꼬물꼬물 정리해둔 중고 제품들과 제로웨이스트, 비건 제품들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며 수박 주스를 팔았던 ‘주시클’ 부스가 특히 인기를 차지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25의용단길부터 비콘그라운드의 살림장까지 안내하는 도시재생 도슨트도 진행되었다. 비콘그라운드에서 수영성 마을박물관까지 이동하며 도장을 찍어보는 스탬프 투어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수영의 명소들을 찾아 도장을 찍고 빙고를 완성한 선착순 100명에게 로컬상품을 증정했는데, 조기 마감이 되어 많이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도도수영 도시재생 청년기획단으로 활동했던 ‘도도그릴스’ 팀의 ‘쓰줍 수줍(쓰레기를 줍다 수영을 줍다)’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 부스에서는 기발하게 숨겨둔 담배꽂초 모양의 연필꽃이를 찾아오면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야채가 심겨진 커피 찌꺼기 화분으로 교환해 주었는데, 청년들의 활동이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신 듯 상큼하게 느껴졌다.

새삼 ‘덕분에’라는 말이 생각난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어주고, 파이팅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들 덕분에 힘을 내어 도도수영 골목이 항상 열린 골목이 되길 기대해본다.



수영구 망미골목의 한복판에 동네의 변화를 이끌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이 될 ‘도도수영8A’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도도수영축제 오픈하우스’ 도슨트투어를 진행하며

윤 라 영

지난해 가을, 가림막을 세우고 공사가 시작될 때 가림막 사이로 빼꼼 구경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시재생 투어 ‘도도수영 한바퀴’ 해설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현재 조성 중인 8개의 핵심시설(도도수영8A, 어울가게 겸 인포센터, 어울민박, 어울주방, 랑랑카페, 실버도서관·영화관, 실버피트니스센터·커뮤니티 공간, 무인갤러리 및 창작공간)을 관리 및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설명을 할 때, 부럽고 기대가 찬 눈빛을 보던 기억 또한 생생하다. 이런 멋진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영의 주민이라 뿌듯했고, 주말에도 망미골목을 지나며 얼마큼 건물이 올라갔는지 괜히 둘러 보기도 했다. 이렇게 도도수영8A는 1년 가까이 나와 함께 성장했다.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슨트 투어를 진행했다. 남구와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3분을 모시고 ‘스탬프 투어’(9개의 장소에 마련된 스탬프를 찍고, 2줄의 빙고를 만들면 선물을 주는 행사)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투어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도도수영8A에서 출발하여 25의용단길, 수영성 남문, 느린 골목길, 망미골목, 비콘그라운드의 살림장까지 1시간 코스를 투어하면서 느낀 소감을 떠올려 보려 한다.

도도수영축제 오픈하우스 현수막 앞에서 출발하기 전, 인증샷을 찍어보았다. 임진왜란 당시 수영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왜적과 맞서 싸운 의로운 25명의 존함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제작된 토우가 있는 25의용단길에서 수영의 역사를 알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투어객의 애기에 가슴이 찡했다.

망미골목을 지나 수영고가아 아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인 비콘그라운드로 향했다. 2층 '비콘 스퀘어'의 야외공간에 마련된 알록달록한 폭신한 의자,

캠핑 분위기 물씬 나는 인디언텐트 그리고 초록으로 꾸며진 바닥까지 인증샷을 찍기에 바빴다.

마지막 지점인 살림장과 비건마켓이 열리는 '비콘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장까지 안내하며 투어를 마쳤다. 이곳에서는 사전에 50% 할인된 도도수영상품권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도도수영8A’의 개관을 다시 축하하며,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랑방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개관 후 꼭 보러오리라 했던 방문객이 와서 도도수영8A의 멋진 지상 5층을 상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고 싶다.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도도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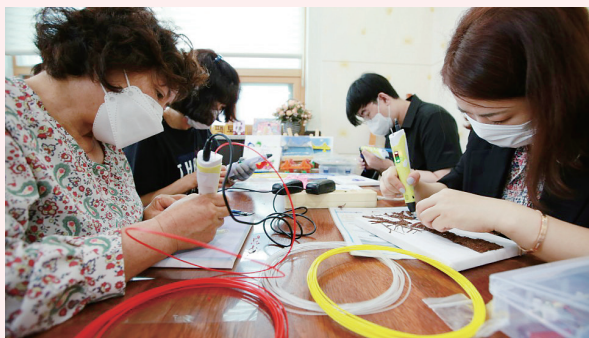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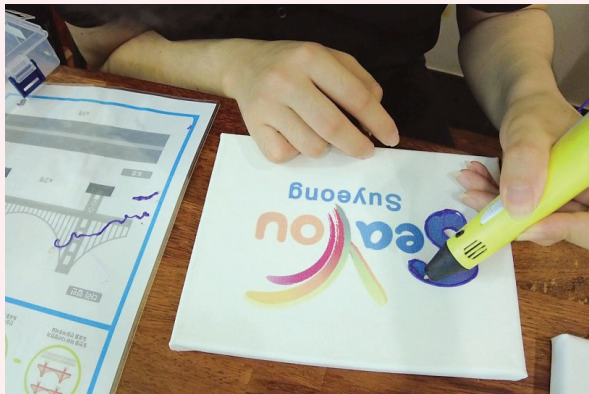
도도 거점 포토존



수영(水螢)은 과거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지역입니다. 현재의 지명도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재미있게 알리고, 도도수영을 찾는 방문객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기 위해 도도르네상스가 움직였습니다. 도도르네상스에서 제작한 경상좌수사와 수군의 캐릭터 모형 토우는 수영성 마을박물관 앞 에코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영으로 놀러와 토우들과 사진 한 컷 찍어보세요!

희망제작소

수영구를 3D 캔버스에 담아내다!



3D펜으로 수영의 역사 및 문화가 담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희망제작소 팀! 수영구의 마크, 수영구의 구화인 함박꽃과 구조인 동박새 등 다양한 작품을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수영구의 랜드마크와 상징물들을 3D펜으로 만들어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마을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반(U'Barn)

문화재생으로 완성되는 도도수영



어반 팀에서는 기부 받은 피아노를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여 꾸민 뒤 수영성 마을박물관 야외데크에 설치하여 열린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했습니다. 6, 7월에는 도도수영의 거점공간을 돌아보고 문화예술공간에서 공연으로 마무리 짓는 투어 콘서트도 진행되었는데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풍장국악마을

도도히히호호



지난 6월 수영성 마을박물관에서 어반 팀과 협업하여 거리공연을 진행한 풍장국악마을 팀! 신명나는 사물놀이, 유쾌한 호랑이 춤, 시원한 모듬북 공연으로 온 동네 주민들이 하나가 된 듯 했는데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호랑이 탈을 쓰고 춤 동작을 따라 하는 체험도 진행되어 즐거움이 배가 되었답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좋은 기운을 통해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 풍장국악마을! 7월에 있었던 도도수영8A 개관식에서도 지신밟기와 사물놀이를 진행해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축원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퇴근길 예술 한 잔

일상에서 만난 어쩌다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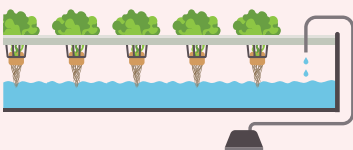
퇴근길 예술 한 잔 팀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음악 편과 미술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된 음악 편에서는 칼림바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칼림바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미니 칼림바를 만들어 각자 연주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해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 편에서는 좋아하는 음식, 가고 싶은 여행지 등을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 드로잉, 채색하여 미니 전시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리워크

망미액티브 시니어 홈 스마트팜 만들기



망미동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리워크 팀!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어 하는 시니어 인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매주 진행되던 강의가 끝나고,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작물을 키우는 모임을 진행하며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미의 액티브시니어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채소들! 그 결과물이 어떨지 아주 기대됩니다.



숲 우리들

향기로운 우리 녹색 어울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이 로즈마리, 애플민트, 블루베리 등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녹색 어울길로 재탄생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도시 골목길에 향기로운 허브길이 만들어지니 그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숲 우리들 팀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회에 걸친 '향기 나눔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허브와 꽃이 심겨진 예쁜 화분을 받아간 주민들의 웃음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도도수영 NEWS

에코상생학교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도도수영 에코상생학교에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도시농업에 대한 수업과 수영사적공원 내 식물 관찰 또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에코상생학교를 통해 주민들은 우리 주변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도심 속 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고 있다. 다가오는 9월 29일에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회를 나누기 위한 성과공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도수영 숲학교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던 도도수영 숲학교가 10회차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도도수영 숲학교에서는 ‘도토리 가족 얼굴 만들기’와 ‘손에 묻지 않는 모래놀이’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수영사적공원 내 천연기념물인 푸조나무와 곰솔나무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을 느끼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너도나도 테마탐방



수영동 곳곳에서 도시재생 탐방 프로그램 ‘너도나도 테마탐방’이 진행되고 있다.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술방울 가족 만들기, 토분 만들기, 스마트팜 샌드위치 체험, 비건 음식 체험, 전통 활쏘기, 생활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일정] 2022년 7~10월 토, 일 (체험별 시간 상이)

[장소] 수영구 수영동, 망미동 일원 (체험별 장소 상이)

[내용] ‘취향 저격! 취미 탐방 : 문화 예술 관련 공방 등 체험 탐방

‘수영의 맛 좀 볼래?’ 맛집 탐방 : 팔도시장 및 망미골목 등지의 맛집 탐방

도시재생투어 : 참여자가 선택한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도도수영 해설사가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주변 상점 등 투어 진행



[탐방 신청 바로가기]

QR코드 첨부

도도수영 NEWS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시총회



지난 6월 9일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구락생활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본 총회를 통해 주민협의체의 임원진이 새롭게 꾸러졌고, 도도수영 뉴딜사업의 추진경과 및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주민협의체는 오는 10월에 있을 광안리어방축제와 연계한 주민축제를 기획 및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사사례지 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지난 8월 31일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협동조합 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확정되었다.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 완성될 3개의 도도수영 도시재생 거점공간(어울림센터, 어울민박, 어울주방)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 적극적인 조합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제품개발



지난 7~9월 어울주방에서 판매될 시제품 개발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묵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총 9회차로 이루어졌으며, 다가오는 10월 주민축제 부스에서 실제 조합원들이 제작한 어묵을 판매해 보는 현장실습이 예정되어 있다. 10월 주민축제는 수영사적공원 놀이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발행처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편집인 전미경, 김연희, 최광훈, 장은서, 조은혜, 김세윤, 김영교
디자인 이상컴퍼니
발행일 2022년 9월 15일
인쇄 청송인쇄사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60번길 26, 4층
전화 051. 610. 4093~6



현장지원센터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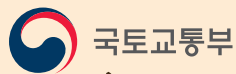
현장지원센터
인스타그램



현장지원센터
페이스북



현장지원센터
유튜브



본 소식지는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